

경제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목포> 동양증권 리서치팀 '하반기 경제전망' 특강

# “대세 상승 증시 2350 간다”

현재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는 유동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환경 안정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이익 개선 등의 영향으로 3분기이후 재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올 하반기 2000~2400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최고 235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는 19일 오후 4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금융 이슈와 하반기 경제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광주일보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경제 아카데미에는 목포와 무안지역 주민과 전남도청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강사로 나선 동양종합금융증권 김주영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글로벌 증시는 2009년 3월이후 시작된 대세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증시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증시의 주가 차별화는 가격부담과 통화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올들어 5.6% 상승한

반면 지난 2년간 많이 올랐던 신흥국 증시는 가격부담과 통화긴축을 위한 정책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0.3% 하락했다.

김 팀장은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G2 가운데 미국은 통화완화 기조로, 중국의 통화긴축 기조를 유

향으로 2분까지는 조정양상을 보이겠지만 3분기이후 재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피지수는 적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62배로 적용할 경우 2350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안정·달러 약세 리스크 요인 사라져

유동성 확대·기업 이익 개선 등 3분기 재상승

적립식 펀드·연금 등 일찍부터 노후 대비해야

지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이에 따라 중국은 6월중에 한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내년 6월 이후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럽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요인도 사라지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지속돼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특히 국내증시는 이런 우호적인 글로벌 금융환경에다 점점 통과가 예상되는 물가지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 등의 영

동양종합증권 조병준 자산전략 팀장은 '행복한 삶을 위한 자산관리' 강연을 통해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전체 자산의 85%에 달하는 부동산 비중 등 자산구조 불균형이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따라서 이제는 금융 마인드가 자산가치를 결정하는 투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적립식 펀드와 소득공제 및 세율이 낮은 연금저축 상품 등으로 일찍부터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대 모습은 '장미'

## 에버랜드, 내일 장미축제 불꽃쇼

에버랜드가 국내 최초로 장미를 컨셉으로 한 불꽃쇼를 선보인다.

오는 21일 밤 '장미,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불꽃쇼는 장미축제 26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것으로 평소보다 5배이상 많은 2만6000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웅장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불꽃쇼는 세계 불꽃 축제 연출팀을 초청해 제작한 것으로 불꽃 외에도 서치라이트, 레이저, 영상, 음악 등 특수 효과를 총동원해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게 된다.

특히 장대한 불꽃을 터트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불새'와 안전불꽃을 특수 장치에 설치해 관람객 가까이서

'장미의 개화'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은 세계 불꽃 축제 연출팀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고난도 기술로 압권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컴퓨터로 제어되는 최첨단 발사장비 시스템을 활용해 불꽃이 30분의 1초 단위로 세밀하게 발사되는 정교한 연출은 음악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휘발유값 9일째 하락

광주 1907.16원...전남 1917.46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방침 직후 최저치보다 더 떨어졌다.

19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1ℓ당 평균가격은 지난 9일 1920.48원을 찍은 후 11일 1918.38원, 14일 1915.76원, 16일 1914.41원에 이어 18일 전날보다 4.71원 내린 1908.37원을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지난 9일 1927.56원을 찍은 후 하락을 거듭, 18일 전날보다 3.31원 내린 1918.14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 조치(4월 7일)의 영향을 받아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값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달 17일(1913.52원)보다 5.15원이 낮아진 가격이다. 전남도 최근 평균가격이 가장 최저였던 지난 2일(1923.96원)보다 5.82원이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인하 조치 이후 한동안 하락하다 정유사가 공급가를 소폭 인상하며 다시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현재 요금청구 시 추후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SK에너지의 방식까지 반영하면 광주는 1907.16원, 전남은 1917.46원까지 떨어진다.

18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가격 역시 가격인하 이후 가장 낮았다. 광주는 1ℓ당 1747.77원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전남은 인하 조치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며 이날 1753.71원을 기록했다.

## 보해저축銀 우선 매각 가능성

예보, 농성중인 부산銀 배고 추진

영업정지 중인 보해저축은행이 우선 매각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실사 등의 작업이 중단된 부산저축은행을 빼고 나머지 저축은행만 우선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해와 부산·대전·부산·중앙부산·전주·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을 이번주 추진할 계획이 있으나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주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을 우선 매각하는 방안과 일정을 늦추더라도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매각은 이르면 다음주에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목포 보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주주인 보해양조와 정부에 피해액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설립한 투자회사가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에 104억원에 이르는 보해양조 자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자산 빼돌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또 대주주인 보해양조 인건주 회장이 법적 보호 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임동룡기자 exian@



19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광주일보 경제아카데미에 참석한 사람들이 관심있는 표정으로 하반기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목포와 무안지역 주민 등 700여명이 물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古家 고향의 맛

## 정통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자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원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

## 월드덕 소리는 원재로운 물론 맛과 품격이 다릅니다!!

**大韓民國 신지식인의 집**

월드덕 추천오리

광주 1등 맛집 1회부터 연속 선정, 다문화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요리 요리 최고 맛집, 우리은행 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선정, 2010 Korea food Expo.COEX 셰프의 상차림 월드덕 불꽃 요리 출품.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월드덕 코스 요리 등 오리 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오리 백숙

황암육수 사브사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물이나 술에 타서 드시면

몸에 좋은 **“발효 효소”** 서비스 제공

**돌잔치/회갑연/단체 모임 환영**

**월드덕 예약문의 062)671-2177,1177** (위치:봉선동 쌍용APT 사거리)

단신

### 대파·무 값 폭락

### 일주일새 30%↓

대파와 무가 출하량이 늘면서 큰 폭으로 값이 내려갔다.

19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기준으로 대파는 한 단에 11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3.3%(590원) 하락했다.

무도 개당 1천180원에 거래돼 한 주전에 비해 28.5% 내렸다. 올해들어 계속 가격이 내렸던 배추는 포기당 1100원으로 지난주와 같았고 양파(3kg)도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인 3400원을 유지했다.

최근 하락세였던 백옥이(3개)는 지난주보다 61.5% 올라 2100원에 팔렸다. 한우 갈비·등심과 돼지고기 삼겹살·목심은 가격이 지난주와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연행남스

### “마약 중독 벗어나자”

### 광주식약청 캠페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1일 광주시 서구 삼우시민공원에서 ‘잘못된 마약사용과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광주 식약청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광주시 약사회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의 종류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및 구입방법 등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으로 열린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가정용 파란에 이르게 하는 마약 중독의 위험을 경고하고,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관심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피고지고 있는 불법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정·불량 의약품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